



## 9. 사료용 피의 사료가치와 퇴비화 할 때 잡초화 방제법은?

### ▣ 피의 사료가치

- 사료용 피의 품종 및 수확 시기에 따라 사료가치가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수수류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편이다.
- 파종 적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경이며, 6월 하순경에 늦게 파종할 경우 생육기간이 짧아 수량은 떨어지지만 사료가치는 높아진다.

〈 제주피와 보라직의 사료가치 (축산원, 2016) 〉

구분	ADF (%)	NDF (%)	조단백질 (%)	TDN (%)
제주피(피)	37.1	63.2	9.7	59.6
보라직(피)	42.7	67.1	11.0	55.2
광평옥(옥수수)	25.8	45.9	7.7	72.0
점보(수수류)	43.3	63.8	9.8	54.8

### ▣ 피의 잡초화 방제법

- 방목용으로 사용하거나 출수 후 5~7일 정도에 수확하거나 최소 개화기 전까지 예취하여 이용하면 종자가 익지 않기 때문에 피의 잡초화를 방지할 수 있다.
- 만약 사료용 피의 종자가 생긴 경우에는 가축에 급여하더라도 발아력이 소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의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를 충분히 부숙시켜 피 종자가 사멸되도록 해야 한다.
- 퇴비단 아래에 공기를 불어넣어 호기적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 퇴비단의 온도가 60℃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피 종자가 완전히 사멸된다.
- 하지만 공기를 불어 넣지 않는 혐기적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 퇴비단의 온도가 50℃ 정도까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20일이 지나도 피 종자의 10% 정도는 살아남게 된다.

【 초지사료과 | 041-580-6741 】